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9강 '대중음악에서 배우는 세대소통, 열정, 혁신의 가치'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각자 삶 속에 혁신·소통·열정 적용해보길”

“워크 하드(Work Hard), 워크 투게더(Work Together). 항상 열정을 다하고 타인과 소통하세요.”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2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9강에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가 '대중음악에서 배우는 세대소통, 열정, 혁신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 평론가는 강의 시작 전 세대 간 소통을 강조하며 최근 국내외 K-POP 시장에서 최고의 화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아이브 등 인기 아이돌의 사진을 보여주며 원수들에게 이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인기 가수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며 뉴트로(New+Retro) 장르로 젊은 층은 물론, 중년 세대도 좋아하는 잔나비와 장범준 등을 소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오랜 시간 '가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용필을 언급하며 '자기 혁신'을 강조했다.

임 평론가는 “조용필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히트곡을 시작으로 다수의 명곡을 낳았다”며 “본래 좋아하던 록, 헤비메탈 장르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곡에 애정함을 더하기 위해 바뀐 연주를 소개하는 등 노래 한 곡을 만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2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9강에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가 '대중음악에서 배우는 세대소통, 열정, 혁신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은솔 기자

조용필·임영웅·BTS 등 K-POP 성공 비결 공유 “일우 간 가치있는 관계가 평생의 큰 자산 될 것”

들 때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조용필은 자기 스타일을 바꿨기에 명곡이 나왔고 가수로서의 운명이 바뀌었다”며 “자기 소리를 끝까지 탐구해 2013년 64세라는 나이에 ‘바운스(Bounce)’라는 곡을 발표하고 밴드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고 호평했다.

임 평론가는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임영웅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팬들에게 적은 글을 보고 인성에 반해 콘서트를 갔는데, 관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놀랐다”며 “성공한 대중

음악가가 되려면 가수의 고객인 청중과의 소통을 통한 ‘고객 만족 브랜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임 평론가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BTS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 10대 여성들이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미국의 대중문화가 좌우된다”며 “과거 마이클 잭슨, 뉴키즈 온 더 블록, 브리티니 스피어스 등을 선택했던 이들이 BTS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시사했다.

임 평론가는 “BTS의 공연을 눈앞에서 보면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 이유는 하루 13시간이 넘는 연습량과 열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서 발산되는 영향력과 힘이 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에 공연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조용필의 자기 혁신, 임영웅의 소통, BTS의 열정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지금 옆에 있는 원수와 소통하며 가치 있는 관계를 갖게 되면 평생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평론가는 “모두 함께 큰소리로 ‘워크 하드(Work Hard), 워크 투게더(Work Together)’를 외쳐보자”며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마쳤다. /정은솔 기자

광산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선언

107인 시민 발굴단 구성...지속가능 일자리 발전 목표

광주 광산구가 '107인 시민 발굴단'과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광산구는 3일 “전날 청사 7층 윤상원홀에서 ‘시원한(시민이 원하는 지속가능일자리) 광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모험선의 항해를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선언식은 박병규 광산구청장, 유관기관, 광산구의회 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실현을 위해 시민 스스로 묻고, 시민이 답하는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

렸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는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 기후위기 등 복잡·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민선 8기 광산구의 핵심 정책으로 구는 그동안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밑그림을 마련했다. 박 청장은 “왜 사회적 대화인가”를 주제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시민께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등을 묻지 않았다”며 “광산구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는 처음으로 일자리·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 될 발굴단은 107명의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제조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마을 일자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한다.

광산구는 오는 9월까지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과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10월에는 전체 논의 과정을 정리·종합한 대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이옥근 기자

광주매일신문, 도담지역아동센터 ‘NIE 순회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2일 광주 남구 도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이론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신나게·재밌게·함께 만드는 학교신문·가족신문’ 교재를 가지고 교육이 진행됐으며, 어떤 사안이 뉴스가 되는지와 뉴스로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또 글을 잘 쓰는 방법, 기사의 특성에 대한 이론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소현(백운초 6)·최은를(백운초 5)·박정빈(백운초 1) 학생은 신문 만들기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 기자

전남개발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솟품 공모전 성료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창립 20주년 기념’ 대국민 솟품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국민 참여를 통해 전남개발공사 창립 20주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제 선정과 형식의 자율성 등 다양한 연령대, 지역, 계층의 참여로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발공사는 접수 작품 중 1·2차 심사를 거쳐 ‘도민들의 든든한 파트너 전남개발공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에니메이션 그림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 우수상 2편과 장려상 3편을 각각 선정했다.

개발공사는 수상 작품을 향후 홍보 솟품 영상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개발공사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공사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개발공사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공사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남부소방, 상반기 구조대원 ‘라이프세이버’ 선정

광주 남부소방서는 3일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공을 세운 남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이 ‘상반기 라이프세이버’로 선정돼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세이버는 재난 현장에서 현격한 공적을 세운 최우수 구조대원 1개 팀에 수여된다. 자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남부소방서 119구조대는 올해 1-6월 총 419건의 인명 구조 활동을 했으며 지난 4월 자동차용 승강기에 걸려있는 사고 차량에 고립된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여러 재난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에 처한 사람을 구해 인명 피해를 방지했다. /주성학 기자



김종률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선정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성학 기자

동부경찰, 마약류 범죄·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광주 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과는 3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동부경찰서, 동구청, 동부소방서, 민간단체 합동으로 업소 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업객원 명부 비치 등을 확인하고, 마약류 범죄 점검 및 유흥업객원 대상 성매매 피해 상담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강기현 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민·관·경 합동점검을 통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를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

한상철 제17대 해양경찰교육원장 취임



한상철(58·사진) 경무관이 제17대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취임했다.

3일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전날 한 교육원장이 취임,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간소한 환영식을 시작으로 대회의실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교육원 내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 교육원장은 “해양이라는 환경은 정형화된 교육 방식만으로 습득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과 훈련이 제공돼야 한다”며 “현장에 답이 있음을 명심하고 해경이 사용하는 모든 자료와 시스템 등을 교육생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함으로써 교육 효과성과 실무전이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훈련은 해경의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신성한 업무임을 명심해 사명감을 갖고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해경을 양성하자”고 덧붙였다.

경북 봉화 출신인 한 교육원장은 안동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순경 특채로 해경에 입직했으며, 해양경찰청 수사대제1안전과장, 동해해양경찰서장,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동명동 자율방범대 ‘금연 홍보 판넬’ 설치

광주 동구 동명동이 ‘담배 없는 마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3일 동구에 따르면 동명동 자율방범대는 ‘2024년 온리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통합공모사업’ 일환으로 최근 카페거리 내 플랜트 박스에 ‘금연 홍보 판넬’을 설치했다.

또한 매주 화·목요일 야간 방범 활동 시 ‘담배 풍조 줄이기’를 통해 깨끗한 마을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명동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펼쳐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김성관 동명동 자율방범대장은 “동명동 상권 활성화로 인해 늘어난 골목길 간접흡연과 담배 풍조 투기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 캠페인을 지속해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대경 동명동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해 도움을 준 동명동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장은정 기자



오승훈 전남소방본부장, 담양소방서 방문

담양소방서는 “최근 오승훈 전남소방본부장이 방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제18대 전남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오승훈 본부장은 담양소방서를 찾아 ▲소방서 일반현황 및 2023년 소방활동 실적 ▲2024년 주요 업무보고 및 현안 청취 ▲직원 애로사항 청취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통했다.

특히 이번 장마철을 맞아 지난해 7월 담양군 무정면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당부했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내준 오승훈 본부장에게 감사하다”며 “조직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신뢰받는 담양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